

강채영 ‘금빛 피날레’…‘광주 신궁’ 안산 동메달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마지막 금메달은 ‘강채영’이 거머쥐었다.

강채영은 12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 금메달 결정전에서 주징이(중국)를 7-3(29-29 29-28 29-29 30-30 29-28)으로 꺾고 시상대에 올랐다.

강채영과 4강에서 대결했던 안산(광주은행)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은 메달 합계 1위를 기록했다.

‘광주의 신궁’ 안산과 함께 임시현(한국체대), 강채영(현대모비스)은 앞서 11일 진행된 여자 개인전 예선을 모두 통과해 16강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다.

안산이 오전 10시 2분 제일 먼저 8강 도전에 나섰고 이어서 강채영, 임시현이 경기를 치렀다.

그리고 ‘여자 태극 궁사’들은 다시 한번 양궁 강국의 위엄을 보여줬다.

강채영은 8강 발렌시아 알레한드라(멕시코)와의 경기에서 1·2세트에서 모두 엑스텐(10-10-10)을 쏘 4점을 가져왔다. 특히 경기 중에 거세게 내린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6·0으로 완벽에 가까운 기록을 보여줬다.

임시현은 8강에서 다이난다 초이루니사(인도네시아)와 맞붙었고, 마지막 5세트에서 28-29 1점 차로 고배를 마셨다. 승부가 결정된 마지막 세트 첫 판정은 동점이었다. 하지만 아슬하게 선에 걸쳐 있던 다이난다 초이루니사의 마지막 한 발이 9점에서 10점으로 바뀌면서 슛오프가 불발됐고, 임시현은 결국 1점 차로 탈락했다.

4강전에서는 강채영과 안산의 ‘집안 싸움’이 벌어졌다.

안산이 2세트를 모두 10점에 명중하는 등 1·2세

한국, 금 2·은 1·동 4 ‘합계1위’

양궁연맹 회장 “만족스런 대회”

22일 세계장애인양궁 개막

트를 연달아 가져왔지만, 강채영이 3·4세트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 5세트 승부에서 강채영이 29-26으로 앞서면서 결승행 티켓을 쟁겼다. 강채영은 기세를 이어 금메달을 명증시켰다. 강채영에게 밀려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 안산은 다이난다 초이루니사를 6-4(28-27 28-27 27-29 29-29 29-29)로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다.

강채영과 안산이 나란히 시상대에 오르면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과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의 성과를 냈다. 종합순위 1위, 메달 합계 순위 1위다.

리커브 남자 단체전에서 김우진(청주시청)·이우석(코오롱)·김제덕(예천군청)이 대회 3연패를 장식했고, 안산과 김우진이 출전한 혼성전에서는 은메달이 나왔다. 또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동메달을 기록했다. 김제덕도 3위에 오르면서 메이저 대회 첫 개인전 메달을 차지했다.

컴파운드 대표팀 ‘맹형’ 최용희(현대제철)는 남자 개인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렉 이스턴 세계양궁연맹회장은 이번 대회에 대해 “전반적인 국제 양궁장의 시설이나 그리고 결승 경기장에 대한 준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잘 조직됐다고 느꼈다. 선수들의 피드백도 상당히 좋았고, 만족도가 높은 대회였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28년에 아시안시프 L.A 올림픽에서는 컴파운드 혼성 종목이 새롭게 추가 되었고 그것이 우리 양궁에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된다”며 앞으로 열린 올림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편 22일에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가 개막해 28일까지 이어진다.

/특별취재팀=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승리한 강채영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을 기다린 金, 엄마 고향서 땀어요”

리커브 여자 개인전 금메달 강채영

“다음 목표는 ‘그랜드 슬램’”

“금메달을 얻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만큼, ‘그랜드 슬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채영이 어머니의 고향 광주에서 10년을 기다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채영은 지난 12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4강에서 안산(광주은행)을 꺾은 강채영은 주징이(중국)와의 결승전을 7-3(29-29 29-28 29-29 30-30 29-28) 승리로 장식하면서 대회 마지막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강채영은 인연이 있는 광주에서 의미 있는 금메달을 얻었다.

강채영은 “어머니의 고향이 광주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하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이 메달을 목에 걸어 의미가 더 뜻깊다”며 ‘광주와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그는 또 “스무살 때부터 세계선수권 대회를 나갔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결승 간 적도 있었고, 어렵게 금메달을 뒀만 적도 있었는데 드디어 금메달을 얻었다. 10년이 걸렸다”며 “32강부

터 쉽지 않은 경기를 했는데, 드디어 해냈다는 마음에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을 즐기겠다”고 값진 금메달 소감을 밝혔다.

지난 10일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뒤 강채영은 “최대 목표는 4강에서 안산 선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명이 다 단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이다. 모두 후회 없이 경기에 임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강채영은 목표 중 하나를 이뤘다. 바로 4강에서 안산을 만나는 것이었다. 강채영은 안산과 4강 승부를 벌였고, 뒷심 싸움에서 승자가 됐다. 안산이 2세트를 모두 10점으로 장식하는 등 1·2세트를 가져갔다. 두 선수는 3세트 첫 발을 나란히 10점에 뒀지만 안산이 마지막 발에서 8점을 기록했고, 결국 강채영이 28-27로 이겼다. 4세트를 10점으로 시작한 강채영은 28-27을 기록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5세트에서 안산이 8점, 9점을 기록한 사이 강채영은 엑스텐을 쏘는 등 연속해서 과녁 정중앙을 맞히면서 29-26으로 승리를 확정했다.

강채영은 “4강에서 안산 선수와 만난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누가 이겨도 한국 선수가 결승을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세 명이 모두 단상에 오르는 꿈은 이루지 못했다.

‘여자 세계랭킹 1위’ 임시현이 8강에서 고배를 마셨다.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파리 올림픽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메달을 놓치지 않았던 임시현은 이번 대회에서는 혼성 대표 자격을 안산에게 내렸고, 여자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에 머물렀다. 그런 만큼 개인전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임시현은 “대회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다. 아무래도 홈(경기)이다 보니가 응원을 든든하게 받아서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8강 탈락에 대해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제대로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도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고향에서 열린 대회로 3개의 동메달로 마무리한 안산은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트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 세트 들어가기 전 갑자기 해설 중계진의 목소리가 들려 평정심을 잃은 것 같아 아쉽다”고 4강전 패배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다. 다음 주에 있을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잘 쉬고 준비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다”며 다음 대회를 기약했다.

/특별취재팀=박연수 기자 training@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난 12일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강채영(가운데)이 동메달을 차지한 안산(오른쪽), 은메달을 차지한 중국 주징과 메달을 든 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타 대결서 웃었다…방신실, KLPGA 시즌 3승

웃앤오픈 우승…다승 공동 1위·대상 포인트 2위 경창

‘장타 여왕’ 방신실이 올 시즌 장타 부문 1위 이동은과 ‘장타 대결’에서 승리하며 시즌 3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방신실은 14일 경기도 포천시 아도니스 컨트리 클럽(파72·6천598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OK저축은행 웃앤오픈(총상금 10억원) 3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1개를 합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그는 3라운드 최종합계 15언더파 201타를 쳐 이동은(14언더파 202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4월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7월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던 방신실은 시즌 3번째 우승으로 이예원과 함께 다승 공동 선두가 됐다.

올 시즌 장타 부문 2위를 달리는 방신실은 동갑내기인 1위 이동은과 선두 경쟁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2라운드를 이동은과 공동 1위로 마쳤던 방신실은 3라운드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이어갔다. 라운드 초반은 답답했다. 방신실은 1번 홀(파4)에서 버디를 뒀으나 이후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9번 홀(파5)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이동은에게 선두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11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뒤 13번 홀(파4)에서 세 번째 버디를 기록하면서 다시 선두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16번 홀(파4)까지 이동은과 동타를 기록하던 방신실은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17번 홀(파3)이 승부처였다. 그는 148.2m의 티샷을 홀 1m 앞에 떨어뜨린 뒤 전금 같은 버디를 잡았다. 반면 이동은은 9.9m 버디 퍼트에 실패했다.

한 타 차 여유를 잡은 방신실은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펼쳤다. 같은 조에서 먼저 친 이동은은 두 번째 샷을 홀 앞에 붙이며 추격 기회를 잡았다. 방신실로선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방신실 역시 두 번째 샷을 보란 듯이 홀 1.6m 뒤에 붙였다. 그리고 먼저 버디 퍼트에 침착하게 성공하며 우승을 확정했다.

그는 우승으로 상금 1억800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5위(8억6982만원)를 유지했다.

아울러 대상 포인트(407점) 6위에서 2위로 뛰어 올랐다.

2021년 OK골프 장학생 6기 출신인 방신실은 이 대회 첫 우승을 거둬 의미를 더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 가장 먼저 누적 상금 10억원을 돌파했던 노승희는 최종 합계 이븐파 216타로 공동 36위에 그쳤다.

지난주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유현조는 6언더파 210타로 공동 9위에 올랐다.

세계 양궁 ‘전력 평준화’ 실감했다

한국, 리커브 전 종목 메달…‘다관왕’ 1명도 없어

한국양궁대표팀이 여전한 ‘최강 전력’을 확인했지만 달라진 ‘전력 평준화’도 실감했다.

한국은 지난 12일 끝난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리커브 전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였다.

홈에서 진행된 대회였던 만큼 ‘3관왕’ 탄생을 기대했지만 2관왕도 나오지 않았다.

대회 마지막 경기였던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강채영(현대모비스)은 여자단체전에서 안산(광주은행)·임시현(한국체대)과 동메달을 기록했다.

김우진(청주시청)·이우석(코오롱)·김제덕(예천군청)으로 구성된 남자대표팀은 단체전 금메달에 성공했지만, 개인전에서는 김제덕이 유일하게 메달 결정전에 올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광주의 신궁’ 안산은 혼성 단체전 대표 자격을 얻으면서 3관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없이 은메달과 2개의 동메달에 그쳤다. 안산은 김우진과 호흡을 맞춘 혼성전에서 스페인에게 우승을 내줬다. 이로 인해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정상을 놓치지 않았던 혼성전 8연패가 무산됐다. 안산은 여자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수확했지만 개인전 4강 대결에서는 강채영에게 밀리면서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단체전 메달을 목표로 했던 컴파운드 대표팀도

‘맹형’ 최용희(현대제철)의 동메달로 위안을 삼았다.

쉽지 않은 경기들을 소화한 ‘태극 전사’들도 달라진 경쟁을 느꼈다.

세계선수권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건 강채영은 “10년 전과 달리 세계선수권 대회도 아시안게임도 쉽지 않았다. 나도 그동안 실력이 올랐지만, 다른 선수들도 똑같이 오르고 단단해졌다. 금메달을 목에 걸기가 정말 쉽지 않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 해설위원으로 나선 광주여대 기보배 교수는 “홈 대회라 선수들 부담이 컸을 것이다. 파리 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도 충분히 잘했고, 정찬해 주고 싶다”며 큰 대회를 치른 후배들을 격려한 뒤 “여자 선수들의 경우 아시아권 선수들이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고 언급했다.

/특별취재팀=박연수 기자 training@